

현대불교

지리산 아생차로 만듭니다.

●농림수산부 지정 한국인동식물재배 사업제
●우리 차문화의 저변확대를 위해 생산자 보호(생산자 소비자 직거래)
0595)83-9665 / 83-3478

고대부터 크게 서비스는 평생
빅만평생통장

●비자가 있으면 소문난대로
내년에는 약탈당하지
●고유번호 부여받은 경우라면
도수정할수록 좋은 다양한
대우서비스 제공
010-023-4000
국민은행

명예회장: 노태평 / 발행인 겸 편집인: 김광삼 / 논설고문: 고은 / 편집국장: 최정희 / 인쇄인: 김규식 / 등록번호: 다-3379 / ©110-170 서울시 중로구 건지동 110-33 / 대표전화: 737-8881 / 편집국: 722-4162 FAX: 737-0698 / 광고국: 737-0692 / 구독신청: 737-0693

구독료: 월 4천원 1년 4만원

불기 2539년(서기 1995년) 9월 27일 수요일 (주간) THE HYUNDAE BULKYO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금주의 법구

‘중생들의 본성은 부처님의
성품과 같이 맑고 깨끗하다.’
(열반경)

법회 안내

관영 금강정사 (02)893-2700

일반신도법회 일 오전10시30분
청년부법회 매주 토 오후7시
고등부법회 매주 초 오후6시
어린이법회 매주 일 오후2시

법안정사 (02)646-4975

가락법회 매월 첫째 토 오후7시
일반신도법회 매주 일 오전10시
청년부법회 매주 토 오후7시
중·고등부법회 매주 토 오후4시

삼보사 (02)352-6404

어린이법회 매주 일 오전10시30분
가락법회 매주 일 오전10시30분
청소년법회 매주 일 오후4시

관영 보현사 (0667)763-1192

초하루법회 매월1일(음) 오전10시
어린이법회 격주 토 오후2시
중·고등부법회 매주 토 오후4시
한인회법회 매주 일 오후7시

관주 종심사 (082)226-0107

초하루법회 매월1일(음) 오전10시
지장법회 매월 15일~19일(음)
관음법회 매월 24일(음) 오전10시
마하연 포교원 (032)513-5328

일요가람법회 일 오전10시30분
청년법회 매주 수 오후7시
중·고등부법회 매주 토 오후3시
어린이법회 매주 일 오전9시30분
그림 육척사 (0556)72-0100

미려법회 매월 15일 오전11시
청년법회 매주 일 정오
중·고등부법회 매주 토 오후2시
어린이법회 매주 토 오후2시
통해 심학사(0394)31-4082

일반신도법회 매월 22일 오전11시
중·고등부법회 매주 일 오전11시
어린이법회 매주 일 오전10시

● 법회안내를 원하시는 사람·
포교당은 전화(722-4162) 팩스
(737-0698)로 연락바랍니다.

구독료납부 은행지포
3054464
우체국 계좌번호
010041-0255243

“절 땅이 줄고있다”

3개월새 토지수용 12건... ‘대토’ 원칙도 흔들

종합적 토지관리 대책 시급

절 땅이 줄고 있다. 토지구획 정리, 도로건설 등 정부의 토지수용이 늘고 있으나 대토(代土)는 갈수록 줄고 있다. 이뿐 아니라 종토세용 토지 강제처분이나 불법 사찰토지매매 등으로 인한 절 땅의 손실도 적지 않아 절 땅을 보존하기 위한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토지 관리 대책이 시급하다.

정부의 토지수용

지난 19일 제 118회 조계종 임시중앙총회에서 보고된 바와는 6. 21~9. 16, 3개월동안 정부의 토지수용으로 인해 처분 승인받은 곳은 총 12건, 이중 대토된 곳은 3곳이고 나머지 9곳의 처분금액은 사찰불사에 쓰여졌다. 또한 지난 4월1일부터 6월18일까지 처분 승인된 사찰토지 총 7건중 대토원칙을 지킨 곳은 용주사 등 3곳 뿐이다. 조계종의 토지처분 승인은 1년에 평균 40여건, 조계종은 토지 처분시 대토를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이러한 기준이 갈수록 지켜지지 않고 있다. 종단의 한 관계자는 “개사찰에서 대토하기 어려우면 교구나 종단 차원에서 모아 대토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 말했다.

종토세 납부

종토세용으로 토지가 강제처분돼 충격을 주고 있다. 통도사 말사인 돌산 일봉사는 지난 8월 사찰 땅의 일부가 대지로 전환함에 따른 종토세를 토지로서 납부했다. 상업공사가 사찰 땅 2백여평을 공매처분하

불법매각

지난 6월 총무원미승인재산 처분 및 임대조사특위 보고에 따르면 영주암 총천사 총용사 등, 토지 불법매각으로 인한 종단의 재산 손실도 여전한 것으로 밝혀져 철저한 감사와 함께 강력한 행정조치가 요구되고 있다. 88년 전사법 시행이후 불법 재산 처분으로 손실된 토지는 80여만평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부처님 일어서는 날 민중의 꿈도...
최은 운주사 천불천탑의 천년된 꿈이 광주민중의 민주열기로 피어나 마침내 이 세상은 청정불국토가 될 것임을 한 예술가가 의치고 있다. 5·18 관련자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지난 20일 개막된 광주 비엔날레에 천불천탑의 꿈과 광주 민주항쟁을 결합시킨 최은당씨의 설치미술이 등장을 관심을 모으고 있다. 사진은 화제작 '구'의 일부.

‘재정실사위’ 등 구성 조계종 118회 총회

조계종 제 118회 임시중앙총회가 지난 19일 열려 △종무부고 △각 사찰분과위 및 각종 위원회 업무활동 보고 △96년 예산편성을 위한 재정실사위원회 구성 △소속세 마을 인수 등 13개 안건을 상정, 토의에 들어갔다 (21일 현재).

19일~21일까지 총무원 교육원 포교인 총무보고를 들은 의원들은 사찰운영위원회구성 추진관계, 주지임명권과 관련한 금품수수, 직영사찰 관리현황, 종토세·토초세 대책방안, 분담금미·채납금 회수 방안 등에 대해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다. 조계종 사상 총무보고 및 질의 응답이 3일동안 이어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차주상보)



‘우리는 불자’ 차량용 스티커 제작

‘우리는 불자가장’ 스티커 보급운동이 한층 더 넓어졌습니다. 20만장을 넘긴 ‘불자가장’ 스티커가 계속 보급되고 있는 가운데 차량용 스티커 ‘우리는 불자, 나와 이웃과 자연은 하나’가 새로 제작됐습니다. 차량에 부착하는 만큼 시각적 효과가 뚜렷하게 디자인된 이 스티커도 원하는 불자님이나 사찰 단체를 대상으로 무료 보급합니다.

‘우리는 불자’ 스티커를 부착한 차량은 불자로서의 올바른 삶을 살아가는 불자의 자량이며 교통질서 지키기에 앞장서는 불자 운전자의 자량이 될 것입니다. 차량마다 ‘우리는 불자’ 스티커를 붙입니다.

스티커 붙이기 동참자 △부산 금강법회 △국청사(주지 승만) △서울 일심회 △대승사(주지 노후스님) △군포보광신도회(회장 오해균) △용마산 성문사 관음회 △전북 승려사 △배재관 △김영회 △이산경 △이원소 △이한철 △박상희 △이동광 △한명덕 △김정란 △송미호 △김계수 △이만우 △김성문 △정성일 △이종복 △이미경 △강명호 △김용철 △김명자 △이상경 △김금옥 △이종복 △김정호 △정용식 △김태용 (무순)

동참금 입금계좌 안내
국민은행 023-25-0007-617
예금주: 현대불교신문
전화: 737-8881, 722-4162
팩스: 737-0698

현대불교 · 한국불교종단협의회 · 대한불교진흥원

매월 1일 ‘보시·지계의 날’로 재가회의, 청소년교육·전국순회법회 추진

한국불교 재가회의(상임의장 서동자)는 매월 1일을 보시·지계의 날로 정하고 재가불자의 실천운동으로 전개하기로 했다. 재가회의는 지난 16~17일 양일간 서울 교육문화관에서 ‘재가회의, 무엇을 할 것인가’란 주제의 대토론회를 갖고 이같은 실천사업을 확정했다. 재가회의가 펼치기로 한 보시·지계 실천운동은 사회 각 분야의 지도자 위치에 있는 전문가들이 내놓은 재가불자 실천강령이어서 눈길을 끌고 있다. 이번 대토론회에는 70여명의 회원이 참석 △사회인생을 위한 불교교육 △청소년교과교의 활성화 △환경경과 사회윤리의 재문 제 △사회복지 활동의 강화 △정치 경제 및 통일 의 문제를 주제로 하는 분과별 토론을 펼쳤다. (주제발표요지 3면)

재가회의는 분과별 토론을 통해 대외사업으로 경주고속전철 취송운동과 지계·보시운동, 청소년교육사업, 지역별 순회강연회를 펼치기로 했다. 재가회의는 또한 조직강화를 위해 내부사업으로 지역별 월례회 개최, 회보발행, 남북수재 만들기 모금을 전개하기로 했다. 한편 재가회의는 이달말 구체적 실천사항과 강령을 확정, 활동에 들어갈 예정이다.

목어

“지금 누군가가 당신의 말을 엿듣고 있습니다.”
전화통화를 하거나 누구와 대화를 나누다 이런 말을 듣게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하던 말을 중단하거나 아니면 목소리를 낮출 것이다. 비밀스런 이야기가 아니더라도 도청당한다는 것은 불쾌한 일이다. 그것은 새삼 강조할 필요도 없이 사생활 침해이기 때문이다.

최근 인천의 가나안 심부름 센터는 사생활 도청 전문회사 역할을 하다 적발됐다. 또 서울에서는 ‘도청’이란 간판을 버섯이 내건 전문도청설비업자들이 무더기로 구속됐다. 간단한 도청장치에 의해 개인정보가 손쉽게 누설되는 사회, 심각한 해도 심득하다. 남의 사생활을 넘겨다 보고, 경

낮새와 밤쥐들

있다. 거기다 사생활 도청업자들까지 기승을 부리고 있으니 개개인의 사생활이 무방비로 노출될 수 있다. 최근 인천의 가나안 심부름 센터는 사생활 도청 전문회사 역할을 하다 적발됐다. 또 서울에서는 ‘도청’이란 간판을 버섯이 내건 전문도청설비업자들이 무더기로 구속됐다. 간단한 도청장치에 의해 개인정보가 손쉽게 누설되는 사회, 심각한 해도 심득하다. 남의 사생활을 넘겨다 보고, 경

SUPEX
SUPER EXCELLENT

선경의 세계화전략은 SUPEX추구입니다

글로벌리제이션 시대는 이제 눈앞에 다가온 현실입니다. 세계가 보호막 없는 단일 시장으로 바뀌고 세계 각 기업들이 무한경쟁에 돌입합니다. 선경은 이러한 시대를 앞서 예측하고 이에 대응하는 세계화 전략으로 수펙스를 추구해왔습니다.

수펙스(SUPER EXCELLENT 수준)추구 — 인간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최고수준에 도전하는 선경의 경쟁우위 전략입니다.

SUNKYONG
鮮京그룹